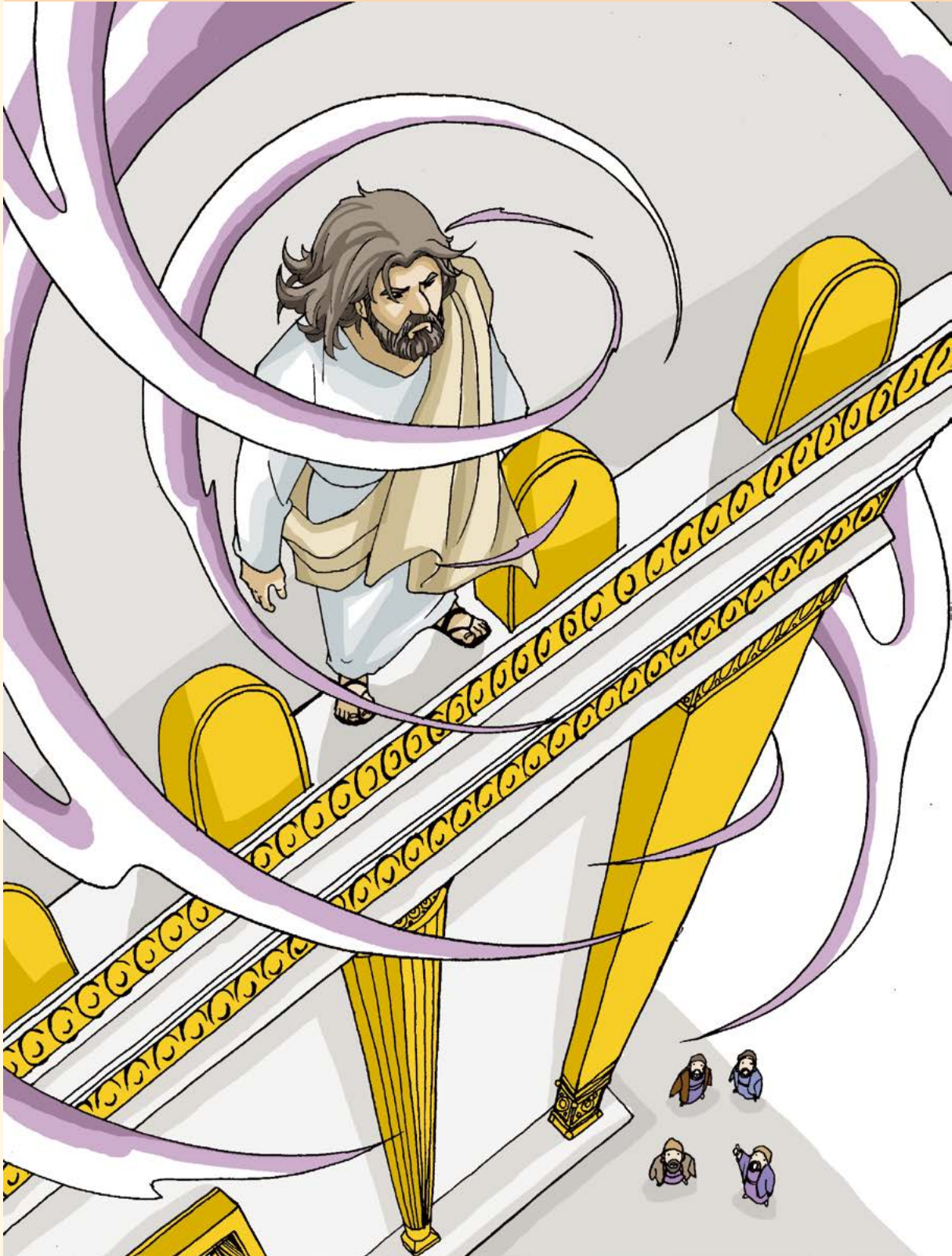


29 광야에서의 세 가지 시험

마태복음 4:1~11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배가 매우 고프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마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갔습니다.

마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번에도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으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경 암송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17)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세상 영광과 모든 좋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세 번째 시험까지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시험이 다 끝난 후,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받들고 섬겼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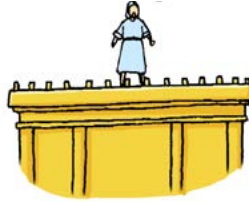


아래 그림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는지 찾아 적고 예수님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신명기 8:3

신명기 6:16

신명기 6:13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후 예수님께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

- ① 피곤하셔서 주무셨다.
- ②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드셨다.
- ③ 천사들이 와서 받들고 섬겼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12)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마귀는 우리의 약한 점을 알고 시험해요. 다음 세 가지 상황이 올 때, 어떤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것인지 알맞은 말씀을 찾아 적어 보아요.



교회에 가지 말고
놓자!

.....
.....
.....



어? 지갑이
떨어져 있네...

.....
.....
.....



야! 이 XXX야!

.....
.....
.....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16~17)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얘들아, 나는 하와야. 에덴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하는데,
뱀의 말을 듣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시험에
빠지고 말았단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귀의 유혹에 빠진 적은 없었는지 적어 보세요.

.....

.....

.....

.....

.....

진리의 ■ ■ 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편 119:43)

삼가 ■ ■ 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만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언 16:20)

예 화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의 개

한 그리스도인이 어느 모임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다 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에 내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형제들이여, 내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으르렁대며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흰색의 선한 개인데 내가 선한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검은색의 악한 개로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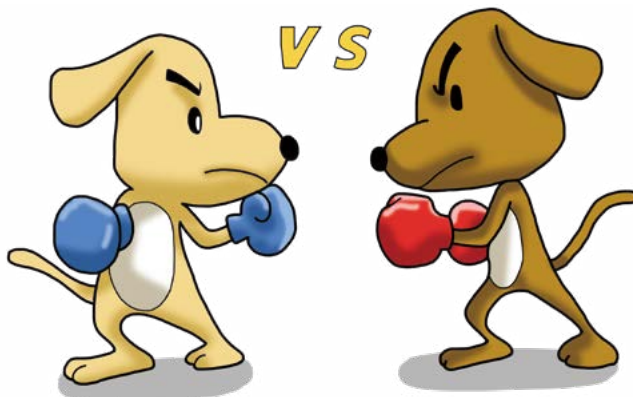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물었다.

"어느 개가 이깁니까?"

그러자 다른 사람이 쟁싸게 대답을 가로챘다.

"그야 뻔하지요 '우리가 쫓, 쫓, 물에 하고 응원하는 개가 언제나 이기게 되기 마련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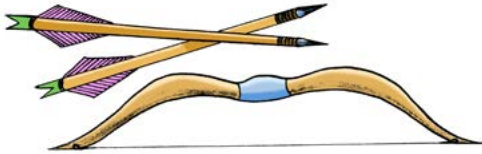
아마도 신앙인의 마음속에 있는 두 본성에 대한 예화 중 이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한다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좇는다면 분명히 파멸하고 말 것이다. (H.A. 아이언 사이드)



예 화



화살을 준비해요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날마다 마당에 앉아서 화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살촉을 날카롭게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화살들을 가지고 매일 과녁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청년이 말했습니다.

"넌 매일매일 화살을 만들고 힘들게 연습하기만 하는구나.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니? 나처럼 조금씩 놀면서 하는게 어때? 공차기도 하고 물놀이도 하면서 말이야. 화살 만드는 것과 활쏘기 연습은 천천히 해도 되잖아.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그 청년은 친구의 유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을 날마다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산속에서 늑대들이 마을로 몰려왔습니다.

평소에 화살을 많이 만들어 두고 연습을 했던 청년은 활을 쏘아 늑대들의 공격에 맞서서 자신의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청년은 늑대들의 갑작스런 공격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늑대들의 공격처럼 마귀의 시험은 언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올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마귀가 시험해 오더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난

선생님난

Blank space for parent's name.

Blank space for teacher's name.